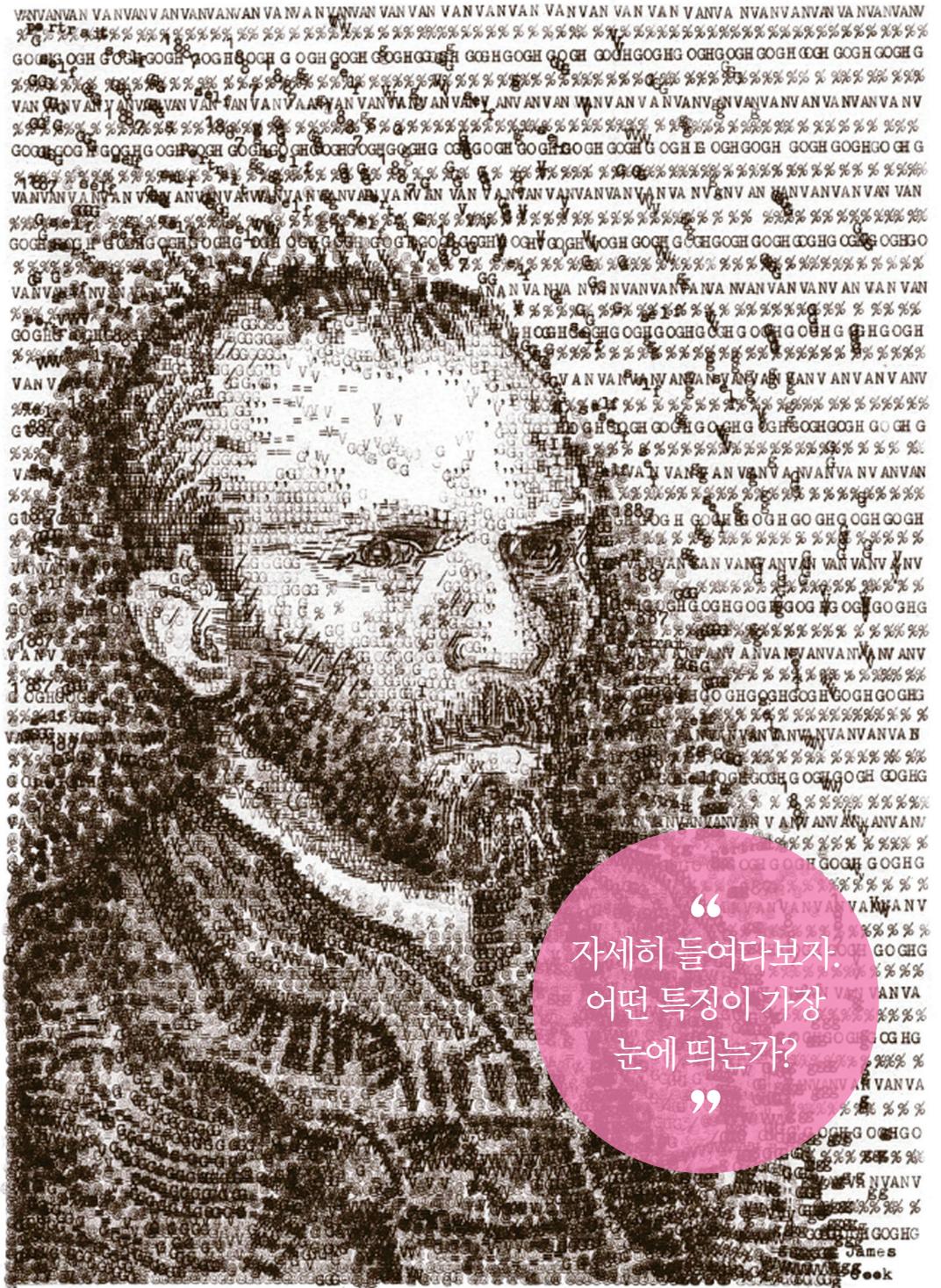


# 01

## 조형 요소와 원리 들여다 보기

- 1 예술 작품과 주변 환경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2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어떤 특징이 가장 눈에 띄는가?”

▶ 쿡(Cook, James/영국/1997~)

반고흐(종이에 타자기로 글자 타이핑/29.7×21cm /2022년) 옛날 타자기의 작은 글자 하나하나를 겹치듯 종이에 쳐서 인물의 형태를 만들어 냈다.

### 작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형 요소

똑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그 모양과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미술 작품도 사용한 재료에 따라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다. 이렇게 작품의 개성을 만들어 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조형 요소라고 한다. 다양한 작품에 적용된 조형 요소를 찾아보고 그 느낌과 효과를 살펴보자.

### ◉ 점



명암(빛)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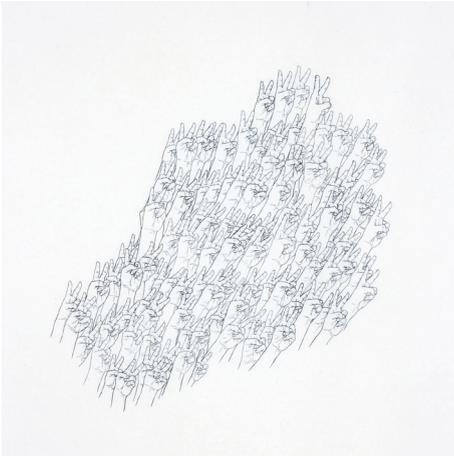
그럼! 정리와 보충에 용어 설명이 있다는 표시이지.



조형 요소의 종류  
점, 선, 면, 형, 색, 질감, 양감, 명암(빛)

▶ 리키사스(Likissas, Dimitri/벨기에/1969~ ) **사람의 아들**(캔버스에 유채/100×100cm/2022년) 단색의 색 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 넣어 마그리트의 작품을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선



▲ 윤기연(한국/1973~) 가위(70×71cm/한지에 수묵 채색/2010년) 단순하고 깔끔한 선으로 그린 다양한 가위 모양 손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하나의 큰 주먹 모양 손 형태를 만들었다.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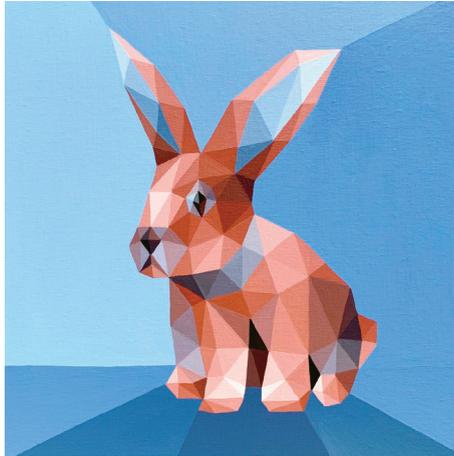
▲ 아전트(Argent, Lawrence/영국→미국/1957~2017) 무슨 말인지 알겠어(유리 섬유, 폴리머 콘크리트/12×6.7×7.3m/2016년) 강렬한 푸른색으로 채색한 거대한 곰 조각이 빌딩 안을 들여다보는 설치 미술 작품이다.

명암



◀ 판혼트호르스트(van Honthorst, Gerrit/네덜란드/1592~1656) 중매인(목판에 유채/71×104cm/1625년) 밝기 효과를 극대화하여 표현 대상을 강조한 키아로스쿠로 기법(명암법)을 사용하였다.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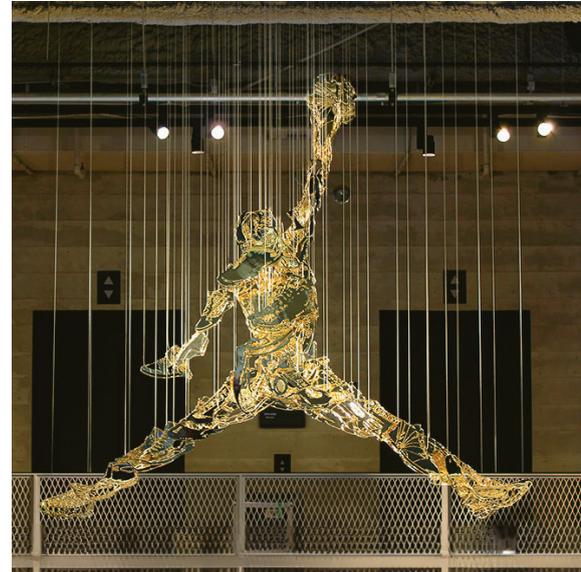
▲ 투질키나(Tuzhilkina, Maria/에스파냐/생년 미상) 크리스털 토끼(캔버스에 아크릴/30×30cm/2022년) 삼각형 면을 연속해서 사용하여 단순화한 토끼를 그렸다.

양감



▲ 아르프(Arp, Hans/독일→프랑스/1886~1966) 새의 성(대리석/24.8×22.9×13.3cm/1963년) 볼록한 대리석 덩어리에서 입체감과 무게감이 느껴진다.

형



▲ 머피(Murphy, Michael/미국/1975~) (위) 황금 점프 맨(아크릴 판/2.7×2.7×1.8m/2014년), (아래) 다른 방향에서 본 작품 신발 모양 아크릴 판이 무작위로 설치된 것 같지만 특정 방향에서는 점프하는 선수처럼 보인다.

질감



▲ 도널드슨(Donaldson, Samantha/영국/1987~) 라임색과 금홍색 암석의 내부(유리/21.5×19.5×11cm/2021년) 작품을 직접 만져 보지 않아도 표면의 매끄러운 질감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작품들!  
어떤 조형 요소가 숨어 있을까?



## 생명을 붙여넣는 조형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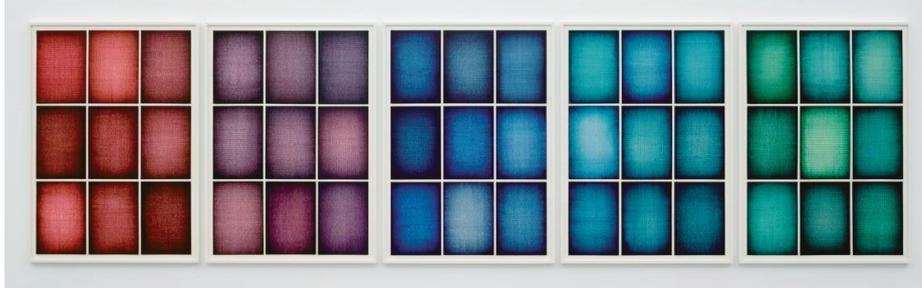
조형 요소가 표현되는 방법과 규칙에 맞춰 미술 작품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조형 요소를 구성하는 방식을 조형 원리라고 한다. 여러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떤 조형 원리가 두드러지는지 탐색해 보자.



### 조형 원리의 종류

반복, 강조, 대비, 대칭, 비례, 균형, 리듬, 동세, 변화, 조화, 통일

### 반복



▲ 우리아르테(Uriarte, Ignacio/독일/1972~) **크레펠트 윈도 시리즈**(종이에 마커/설치 작품/2020년)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똑같은 크기의 작품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배치하였다.

### 강조



▲ 루스(Russ, Torsten/독일/1955~) **집 안의 성 히에로니무스**(캔버스에 연필, 먹/200×150cm/2012년) 흑백 그림 중 인물에게만 붉은색을 사용하여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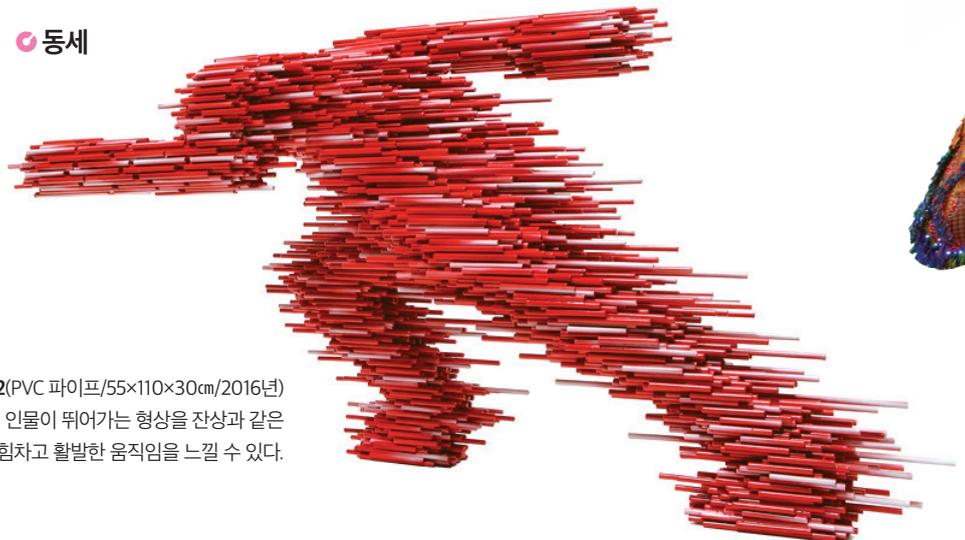
▶ 강덕봉(한국/1978~) **변장 1-2**(PVC 파이프/55×110×30cm/2016년) 파이프의 길이와 색상을 달리하여 인물이 뛰어가는 형상을 잔상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힘차고 활발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 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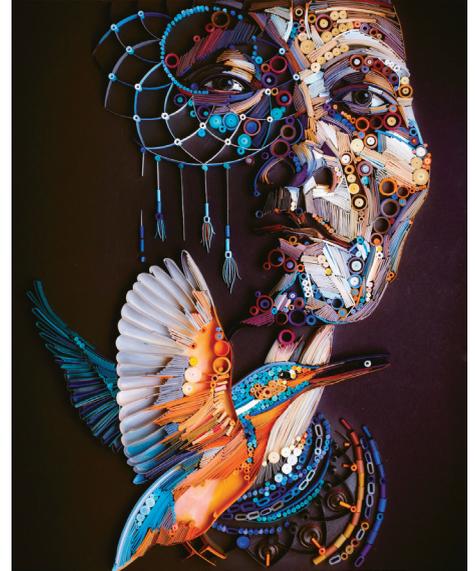


▲ 문신(한국/1923~1995) **하모니**(청동/68×84.5×28cm/1981년) 동일한 형태의 구조물이 좌우 대칭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어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 동세



### 대비



▲ 브로츠키야(Brodskaya, Yulia/러시아→영국/1983~) **드림캐처**(페이퍼 키팅/65×51cm/2020년) 다양한 색상의 종이를 말아 붙여 만든 인물의 강렬한 색감이 검은 배경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 리듬



▲ 슈뢰더(Schroeder, Virginie/프랑스/1976~) **M and Ms 사랑 폭발**(캔버스에 아크릴/122×122cm/2022년) 구불구불한 선에서 부드러운 리듬감이 느껴진다.

## 작품에 녹아든 조형 요소와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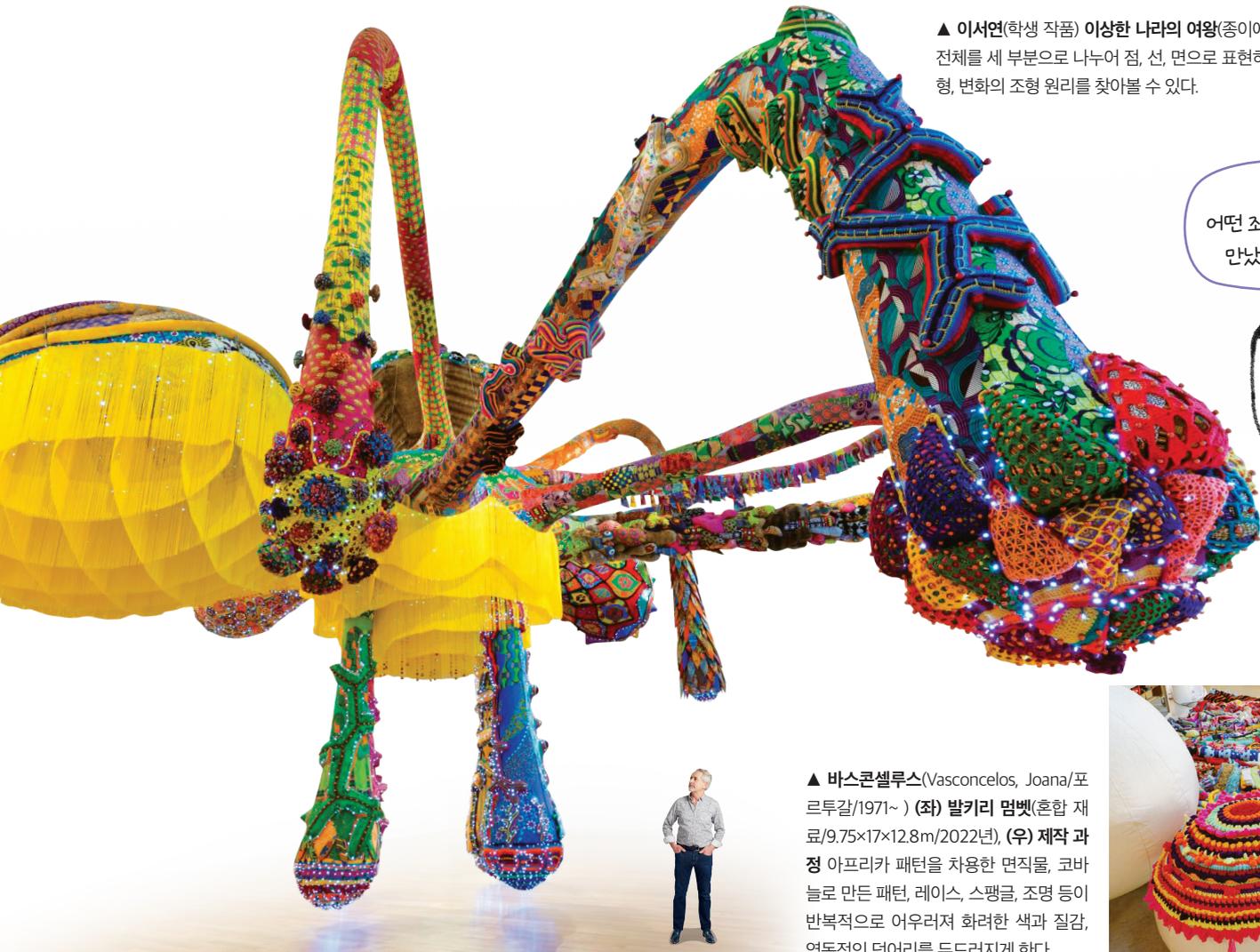
미술관에서 만나는 작가의 작품,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에는 조형 요소와 원리가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조형 요소와 원리가 어떻게 작품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알아보자.



▲ 김소희 외 14명(학생 작품) 픽셀 아트 벽화(부분/캔버스에 포스터 물감/120×200cm) 사각형 면으로 그린 캐릭터를 모아 벽화를 만들었다.



▲ 이서연(학생 작품) 이상한 나라의 여왕(종이에 펜, 연필/25×20cm)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점, 선, 면으로 표현하였다. 반복, 대비, 균형, 변화의 조형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작품에서 어떤 조형 요소와 원리가 만났는지 알아볼까?



▲ 바스콘셀루스(Vasconcelos, Joana/포르투갈/1971~) (좌) 발키리 멤벳(혼합 재료/9.75×17×12.8m/2022년), (우) 제작 과정 아프리카 패턴을 차용한 면직물, 코바늘로 만든 패턴, 레이스, 스팅글, 조명 등이 반복적으로 어우러져 화려한 색과 질감, 역동적인 덩어리를 두드러지게 한다.



## 우리의 일상에 녹아든 조형 요소와 원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공간과 물건,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진 미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일상의 한 장면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보고 그것이 주는 시각적 재미와 효과를 탐색해 보자.



▲ 신은정(한국/1985~) 강아지와 오후(디지털 사진) 순간을 포착하여 촬영한 스냅 사진이다. 강아지와 장난감, 수영장의 색이 서로 강한 대비를 이루며 강아지의 자세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 G카페(강릉/2021년) 검은 선으로만 완성한 인테리어가 만화책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고, 흑백의 인테리어와 다채로운 색상의 디저트, 음료가 대비를 이루어 색다른 인상을 남긴다.



▲ 같은 종류의 파라솔이 반복하여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 밤하늘의 불꽃놀이에서는 점, 선, 색, 빛의 조형 요소를 모두 발견할 수 있고, 폭죽이 터지면서 바뀌는 불꽃 모양에서는 동세와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색 파우더를 뿌리며 즐기는 이색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모습이다. 색 그 자체가 중심이다.

▽ 코슬로프 건축사무소, 예술가 캘럼 모턴, 모네시 아트 프로젝트(MAP)의 리모델링 협업 작업 모네시 대학교 생명과학부(2017년) 외부 파사드에 돌출형 구조가 반복적으로 배치되었고 건물 일주에는 노란색 구조물이 다른 부분과 대비되며 강조되었다.

조형 요소와 원리는 어렵지 않아! 언제나 우리 옆에 스며들어 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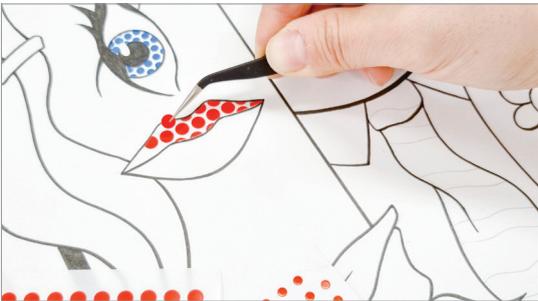
## 표현 활동

### 원형 라벨 스티커로 리히텐슈타인 따라잡기!

#### 표현 재료

도화지, 연필, 지우개, 원형 스티커, 핀셋, 드로잉 펜(검정), 트레이싱지, 코팅 기기

- 1 연필로 기본 형태를 스케치한다.
- 2 검정과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 원형 스티커를 붙여 점묘화를 그리듯 면을 채운다.



- 3 완성된 작품에 트레이싱지를 덮은 뒤, 코팅 기기에 통과시켜 스티커가 도화지에 단단하게 접착되도록 열처리한다.

▶ 오수빈(학생 작품) 엘레강스 커플(종이에 스티커, 펜/20×18cm)



## 단원 점검하기

- 작품과 일상생활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고 그 특징과 효과를 말할 수 있는가?
- 조형 요소와 원리를 적용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어떤 예술 형태로든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키프-